



農家所得增大 뒷받침

尹 章 奎

(經濟評論家)

1. 多目的인 食工系 畜産의 育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畜産振興은 農家所得增大와 激増하는 畜産物需要 增大에 對應 充足시키겠다는 2大目標로 出發되었고 그 目標達成을 위한 가장 具體的인 움직임을 보인 時 단계가 1975年 이었다.

75年の 施策內容을 概觀한다면 ① 事業規模의 擴大 ② 中期資金으로 육성우, 비육우의 농가입식 ③ 國內飼料 開發 ④ 導入窓口를 農協으로 一元化 ⑤ 對日貿易增大 ⑥ 生畜 및 畜産物의 輸出促進 등으로 要約된다.

이와같이 前例없는 畜産振興策을 決定 實施한 결과 增産에는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消費側面에 큰 蹉跌을 가져왔기 때문에 묶어서 말한다면 後日을 위한 좋은 敎訓을 얻었다고 보아야 했었다.

生産은 方法如何에 따라서 計劃과 實際가 맞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消費計劃은 空轉部分이 생기기 쉽고 더우기 輸出計劃일 경우에 그러하다. 지금은 領土戰爭 時代가 멀리지

나가 버린 貿易戰爭時代로서 세계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하면 貿易黑字를 많이 낼 수 있을까, 또는 貿易赤字를 줄일 수 있을가에 血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貿易黑字(或은 赤字縮少)를 指向하는 輸出增大戰略으로 ① 海外市場의 開拓 ② 輸出品의 高級化와 新商品開發 ③ 投術向上 ④ 輸出코스트切下 ⑤ 사실상 物物交換 貿易 ⑥ 輸出促進을 위한 特定國으로부터의 輸入 ⑦ 덤핑行爲 ⑧ 延拂輸出 ⑨ 非商品 輸出 및 其他에 걸쳐 可能한 모든 方法을 輸出增進戰線에 動員하고 있는데 ⑩ 輸入規制를 위해서도 輸入許可制, 輸入코터制, 特惠關稅의 縮小 輸入事前 承認制 그리고 그 外에도 갓가지의 輸入規制措置를 先進國부터가 追加, 擴大하고 있는 大勢이다.

둘이켜 보건대 美國을 先頭로 해서 貿易自由化가 提唱된 後 漸進的으로 幅을 넓혀온 것이 벌써 40餘年の 歷史를 손꼽게 되었다. 그리고 這間에 累積된 「貿易自由化」의 功績이 세계 經濟發展에 寄與한 사실은 甚大하였다. 그러나 近年 특히 73年 오일쇼크 以後에는 實

易自由化 精神이 날이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어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結論하자면 畜産의 大幅増産은 食品加工의 擴大와도 일단의 直結을 시켜서 研究,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勿論 非食工用 消費가 內需用과 輸出용으로 廣範 多量하게 마련이지만 食品加工業의 發達없이는 國民食生活이 改善될 수 없고 國民食生活이 改善되며 加工食品의 需要가 저절로 增加하는 것이므로 畜産物增加計劃에 食品工業의 畜産物消費力이 充分히 反映되어야 한다. 한편 畜産을 振興시키는 前提條件으로 企業畜産 특히 食品工業의 直, 傍系인 畜産 企業體들을 支援育成하는데 힘쓰는 施策이 퍼져 나간다면 ① 食品工業과 畜産業의 發展 ② 農民의 所得増大 ③ 輸出増進 ④ 穀物節約(食品工業은 穀物節約型 工業이므로) ⑤ 國民의 食生活 改善等等 多目的을 同時達成할 수 있는 確率이 높다는데 異見이 있을 것 같지 않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畜産獎勵政策으로 畜産業에 대해서는 臨時措置로 一定期間의 稅制上 支援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食品工業體가 國家需要를 위한 直, 傍系 畜産業體를 運營하거나 當該食工會社의 一部門事業으로 畜産業을 營爲할 때에는 施設, 運營資金의 政策支援을 하는 方法이 考慮되었으면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資金支援은 內需用을 뜻하는 것이고 輸出을 위한 것은 宜當 輸出産業에 대한 資金支援을 받는 均衡의 原則이 適用되어야 할 일이다.

2. 肉類消費의 國際比較

우리나라의 肉類消費량이 國民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近年에 急増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國際比較面에서의 그것은 아직 甚히

낮은 線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더욱 顯著한 高度消費成長을 나타낼 必至의 사실에 對備하는 生産振興策이 절실히 促求된다.

즉 1975年度는 畜産振興을 위해서 各가지의 積極施策을 시작한 새로운 起點年度이었다. 그래서 生産消費가 모두 두드러지게 늘어난 해(年)이다. 그런데도 그해 1年間의 1人當 肉類消費량은 6.4kg에 不過하였다.

같은해 美國의 肉類消費량(1人當)은 우리의 17.3倍이고 이스라엘 46.7kg, 프랑스 45.1kg, 日本 19.0kg, 泰國 11.0kg 등으로서 우리의 肉類消費량이 너무나 低水準임에 새삼 놀라게 된다.

肉類消費량이 적다는 것은 첫째로 國民所得이 아직 바람직한 높은線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肉食보다도 菜食과 果實系食物을 많이 攝取하는 것이 保健, 健康増進의 食生活態度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常識이다. 그러나 이같은 警告的인 뜻도 內包된 菜食 등의 勸獎論은 어느편이나 하면 過當肉食을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有益한 保健論에 屬한다.

둘째로 肉類消費가 적은것은 穀類消費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年間 約 3百萬톤의 外穀을 輸入해야 하며 人口增加率이 年 1.6% 水準을 맴돌고 있으면서 平均壽命이 해마다 높아지는 一聯의 統計를 直視할때 穀類消費를 줄여가지 못하는 어떠한 要因에도 非常한 關心이 아니갈 수 없다.

세째로 穀類節約의 乘數的인 效果를 招來시키는 것이 食品工業의 發展이다. 따라서 肉類消費가 많지 못한 것은 그 나라의 食品工業이 아직 많은 發展素地를 남겨두고 있다는 說明일 수 있다. 즉 食品工業의 擴大, 成長은 그만큼 肉類消費의 増大를 隨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食品工業의 發展素地가 넓게 存在해

있음은 위에서 말한 肉類消費統計가 立證한다.

以上으로서 國民所得, 穀物消費, 食品工業의 發展段階性등에 걸친 肉類消費水準과의 相關關係를 살펴 보았거니와 畜産物의 需給圓滑度 如何가 問題의 關鍵을 잊어서도 안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數量的으로 需要充足이 不可能할 時 消費國民이 願하는 程度의 高蛋白質 食物의 攝取가 不可能하게 마련이다. 더우기 높은 價格水準일 경우에는 肉類消費의 大衆化, 日常化가 가로막히 진다. 原則적으로는 國民所得水準이 낮은 나라일수록 되도록 價格水準이 낮아야만 畜産物의 消費助長 效果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民所得이 낮으면서 畜産品의 價格이 높은 水準이라면 消費伸張은 自動制約의 結果를 免할수가 없었고 따라서 畜産發展速度가 遲遲不進하게 마련이다.

需要가 적으니 값이 비싸지고 값이 비싼 狀況에 需要가 적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이 되풀이 하는 惡循環을 根源的으로 封鎖하자면 畜産政策이 積極的으로 生産, 消費의 兩面에 걸쳐서 均衡있게 움직여져야 한다.

이같은 理論的으로 너무도 分명한 事理가 어떻게 實際面에 反映될 수 있을 것인지를 別項으로 言及해 보고자 한다.

3. 非穀飼料도 開發해야

食品工業이 穀物節約工業인 所以는 別項으로 言及한 바와 같다. 한편 食品加工의 畜産物에 依存하는 度가 無視할 수 없을 만한 品目들이 있고 一部畜産은 穀物飼料의 消費가 大體로 甚하다.

이렇게 一部 食品工業은 畜産物을 原料로 써야하고 一部畜産은 飼料로 많은 穀物을 消費함으로써 食品工業의 穀物節約效果를 май

너스 시키게 된다. 畜産의 種類에 따라서는 消費者가 쌀값의 몇배(飼料穀物價 基準)나 되는 肉類(돼지고기의 경우도 그렇다)를 먹어야 하므로 肉類를 먹는 것이 穀物의 消費節約이 되는 것도 아니고 食生活費의 節減方法도 아니다.

때문에 ① 草食畜産이 獎勵되어야 하고 ② 國內의 새로운 非穀物系 代替飼料 開發이 緊要해 진다. 뿐만이 아니라 主로 輸入인 穀物飼料에 依存하는 것은 「畜産業의 不安定」을 不可避케 한다. 飼料生産國의 凶豊이 飼料를 高率 輸入에 依存하는 나라들의 畜産業의 成長을 決定하기 때문이다.

近年의 世界 穀物飼料의 움직임을 되돌아 보더라도 ① 72/73년에 美國의 生産調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南아프리카 등 主産地의 日氣不順 등으로 全世界 飼料穀物이 前年보다 2.5% 減産하였다.

② 74/75년에는 耕地面積이 2.6百萬헥터 增加하였는데도 總 生産量의 37% 總 交易量의 50%를 각각 차지하는 美國이 旱魃과 早期降霜으로 19.3%나 大幅減産(세계 總 減産量의 90.7%)되고 캐나다, 아르헨티나도 日氣不順으로 減産하였다. 따라서 西東歐에서의 微增에 不拘코 世界的인 大減産이었다.

③ 75/76年만은 總生産量 655百萬톤으로서의 增産이었는데 美國,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增産되어 西歐 蘇聯의 減産에 不拘하고 全世界的으로는 微增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世界 飼料穀物이 自然條件앞에 甚히 脆弱한 것도 參酌하여 穀物飼料 輸入依存度를 積極引下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또 輸入 穀物飼料 節減策으로 ① 專業牧場을 育成하고 ② 機械化를 通해 大單位牧場을 擴大造成하며 ③ 낙농을 都市近郊로부터 地方으로 分散시키는 것등이 綜合的으로 促進되어야 하겠다.